경제혁신
희망의 대한민국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http: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정종영 과장(044-203-4380) 홍충완 사무관(4384)
무역협력과 이원희 과장(044-203-4840), 오성진 사무관(4841)
자동차조선과 이원주 과장(044-203-4320), 이상은 서기관(4321)

주형환 장관,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는 LG베스트샵과 신라면세점 현장 점검

① 내수진작 효과를 반감시키는 현대자동차 파업을 강력하게 비판
② 면세점의 수출기업화 및 매출 1조원 이상 소비재 기업 육성 강조

□ **주형환 산업부 장관**은 3일간 연휴 마지막날인 **10.3일(월)일** 코리아 세일페스타(이하 "코세페")에 참여하는 **LG베스트샵**(강남 본점)**과 신라면세점**(용산)을 방문하여 할인행사 진행상황과 **국내 소비자 및 외국인 방문객의 반응 등을 확인함**

* 10.1일(토) 서울 수유시장, 10.2(일) 서울 롯데백화점·면세점(소공동)에 이은 3일째 방문

전문점 확대를 통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내실화 및 자동차 파업사태 조기 종식을 통한 수출정상화 필요성 강조

□ **주장관은** 올해 **LG베스트샵 매장을 방문**하여 "**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전부문**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**평소보다 더 큰 폭의 할인율로 소비자를 맞이**하게 되었다"라는 **관계자의 설명**을 듣고,

○ "내년에는 가전뿐만 아니라 가구, 문구, SPA*, 안경 등 **다양한 분야의 전문점 참여를 유도**하여 **소비자의 혜택을 확대**하는 한편, **참여업체가 매출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**할 것"이라고 말함

* 의류와 관련하여 제품의 기획 및 제작, 유통까지 하는 전문소매점

** 리바트(가구, 122개 점포), 알파(문구, 652개 점포), 탑텐(SPA, 121개 점포), 다비치안경(안경, 183개 점포) 등 품목별 주요 전문점 참여시 천여개 점포 추가 참여 가능

□ 주장관은 **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[illegible] 함께 회복되는 것이 중요**하다고 강조하고, **코리아세일페스타** 등을 통해 **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**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, 지난 **8월 겨우 플러스 반전에 성공한 수출은 곳곳에서 암초**를 만나 **9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우려**를 표명

□ 주장관은 무엇보다도 "최근 현대자동차 파업이 어렵게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"고 강조하며 **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한 조속한 조업 정상화**를 재차 촉구

* 현대차 파업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되어 9월 30일까지 총 24일 212시간에 달하며, 생산차질은 13만 1천대, 수출차질은 13억불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

○ 주장관은 "현대차 파업으로 애꿎은 협력중소기업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데, 오죽하면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임금을 더 올려 받기 위한 현대차 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을 비판하며 현대차 불매운동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겠는가"라고 하면서,

- "글로벌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조선, 철강,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, 어느 국민이 작금의 현대차 파업사태를 공감하고 현대차 노사를 지지하겠는가"며 강하게 비판

○ 이와 함께, 주장관은 "자동차 파업으로 주춤하는 사이 후발국들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. 어떻게 올라간 수출 빅3 자리인데 멕시코에 자리를 내주고 이제 4위 자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. 현대차 노사는 국민기업의 노사답게 국민들의 냉정한 시선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하루속히 파업을 끝내고 정상조업에 복귀하기 바란다"고 강조

* ('16.1~7월 생산) 인도 257만대, 한국 255만대, ('16.1~8월 수출) 멕시코 181만대, 한국 169만대

□ 한편, 주장관은 "**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**하여 **참여업체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**하고, 이를 발판삼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**매년 정례화**하여 **세계적인 쇼핑관광축제로 발전**시켜 나갈 계획"이라고 밝힘

매출 1조원 브랜드 확대 및 중소·중견기업 수출 확대 지원방안 설명

□ **주장관은** LG베스트샵에 이어, 용산에 위치한 **신라면세점을 찾아** "중국의 국경절을 계기로 **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**하고 있으며,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명 보다 최소 10%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**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**했다"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관광객들로 달아오른 **현장 분위기를 확인**함

□ **주장관은** "면세점의 주력 제품이자 새로운 수출 효자상품인 **소비재 분야에서 해외 고소득층을 공략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지속 창출**에 중점을 둘 계획"이라고 밝힘

○ 또한, "현재 **아모레퍼시픽의 '설화수' 하나** 뿐인 **매출 1조원 기업**이 **올해말까지 2개, 내년말까지 3~5개***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**프리미엄제품 개발,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, 수출마케팅에 이르는 종합대책**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고, 이를 정상 추진 중"이라 설명

* ('16년 잠재적 후보군) LG생활건강 '**후**', ('17년 잠재적 후보군) 셀트리온 '**램시마**', 아모레 '**이니스프리**' 및 '**라네즈**'

□ **나아가 주장관은 "**그간 수출확대에 있어 대표적인 숨은 애로였던 **면세점 수출 불인정 문제는 업계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개선**을 눈앞에 두고 있다"고 언급

○ 특히 관련법령 개정작업이 곧 마무리되어, "**10월 20일부터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할 경우 수출로 인정**받게 될 예정"이며,

○ 이를 통해 "**면세점은 당당히 수출기업으로 인정**받게 되었고, **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·중견기업들은 무역금융 등 200여개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**에 포함"될 것이라고 밝힘

□ 더불어, 국내외 면세점에서 **세계 유명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우리 중소·중견기업을 육성**하기 위해 이들의 **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**할 계획이라 언급

Indus

○ 우선, "중소·중견기업의 수요가 큰 **해외전시, 지사화사업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시행중**이며, **내년에는** 중소·중견기업이 필요한 수출 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**6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제도**를 새로 도입하고,"

* 지원규모('15 → '16) : (해외전시) 4,000 → 8,000 (지사화) 2,800 → 5,000

○ 둘째, "해외네트워크와 전문역량을 갖춘 **대형 유통사 및 종합상사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**하여, 중소·중견기업 수출지원에 적극 활용 예정이며,"

* 매출 5백억원, 해외점포 3개 이상인 유통회사와 수출액 1억불 이상인 종합상사를 '전문무역상사'에 포함(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추진)

○ 셋째, "해외에 진출해 있는 **우리 유통업체를 활용**하여 **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의 수출을 확대**하는 **방안도 추진**할 계획"이라 밝힘

* 해외진출 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"한국상품관"을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Test-Bed 및 판매장소로 활용

○ 마지막으로, "**유통망과 자본력을 갖춘 중국 투자가들**의 한국 **유망 소비재 기업**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IR(투자자설명회)을 집중 지원하겠다"고 설명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홍충완 사무관(044-203-4384), 무역협력과 오성진 사무관(044-203-4841), 자동차조선과 이상은 서기관(044-203-4321)